

목포시, 내년 전국체전 준비 만전

종합경기장 건립 등 인프라 확충 운영위 구성 홍보·운영 지원

목포시가 오는 2023년 10월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20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자세로 양대 체전을 준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추진체계 구축 ▲체전시설 확충 ▲시민참여 확대 ▲손님맞이 준비 등을 골자로 하는 체전준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가고 있다.

시는 우선 목포국제체육센터 인근에 목포종합경기장을 건립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종합경기장은 육상 경기와 함께 개·폐회식이 진행될 메인스타디움으로 총 공사비 920억원(국비 200, 도비 230, 시비 490)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2만6468㎡ 규모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대부분의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운동장 조성과 마감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국제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카누경기장, 부주산 체육공원 클라이밍센터 및 테니스장 등 도 개·보수할 계획이다.



박홍률(가운데) 목포시장이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시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대 체전 운영위원회 구성 등 대회 준비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 짜여질 운영위는 목포교육지원청, 목포경찰서, 목포소방서, 목포시체육회, 목포시장에인 체육회 등 유관 기관·단체가 중심이 돼 체전 준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체전 집행부는 전국체전추진단을 중심으로 1단 17부74팀으로 구성된 경기장 시설 확충, 수용 태세 확립, 도심 미관 정비, 체전 홍보 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 지원, 학교시설 지원, 경비·경호, 교통·보안, 안

전·구조·구급대책 등 각 분야별 준비를 실행한다.

이 밖에도 양 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별시민 서포터즈'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양대 체전은 목포를 스포츠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킬 기폭제가 될 것이다"면서 "차질없이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 모두가 환영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양대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기자 노트

낙지 치어의 반란



이상선

지난 7월 낙지 금어기가 끝났지만, 여전히 낙지 맛보기가 힘들다. 물량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운 가격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낙지는 보통 세발낙지(치어)와 소·중·대 낙지로 구분해 유통된다. 현재 대낙지는 마리당 2만 5000~3만원으로 20마리 1점당 50만~60만원의 사상 최고 가격에 서부취재본부 부국장 격으로 시장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등 결국은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인은 어획량 부족에 있다. 어획량 감소의 주된 원인은 눈만 있는 치어까지 포획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족 고갈의 문제는 뒷전이고 우선 소득을 올리고 보자'는 마구잡이식 어획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생태계가 있는 모든 것들은 어려서부터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만 향후 많은 양의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하지만 대책 없는 통발어업자들은 낙지 산란기인 금어기에도 지자체에서 허가한 통발 수보다 훨씬 많은 통발을 설치 어린 낙지까지 잡아내고 있다. 100개의 통발 어업을 신청 승인받고

실제적으로는 수배인 500개 이상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또 금어기에 어획한 낙지는 불법이라 위탁 경매할 수 없지만, 일부 어민들이 몰래 민간인들에게 직접 유통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어민들은 낙지잡이를 포기하고,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등 결국은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함에도 '세발낙지'를 우리의 맛의 고장 유명 특산물이라고 버젓이 내세우며 식단에 올리고 있다.

이 문제는 어업인, 위탁판매처, 통발 불법어업단속기관 등 모두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낙지어업 금지 기간도 늘려 어린 낙지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발낙지는 수평 축에서 위판을 금지한다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질 것이고, 자연방류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치어를 보호하는 대안도 필요해보인다.

낙지 보기가 힘들어진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일명 세발낙지는 먹어서는 안 되는 치어 즉 보호해야 할 어린 새끼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했으면 한다.

/sslee@kwangju.co.kr

영광군 용암·남산저수지

어린 동자개·자라 방류

영광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최근 근남면 용암저수지와 대마면 남산저수지에 어린 동자개 8만마리와 어린 자라 5000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동자개는 유육이 완만한 하천의 중·하류에 서식하는 아행성 물고기로 등에 가시가 돋아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하는 어종으로,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에서 식자재로 수요가 높아 고소득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자라는 우리나라에는 1종만 서식하며 저수지 및 하천 퇴적층을 파헤치는 습성이 있어 저수지 오염 예방, 생태계 환경·수질 개선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방류는 군민들이 선호하는 어종을 방류하였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 수산종자의 방류를 확대해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수산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올해 칠산해역에 대해 1000만미, 조피볼락 16만미, 보리새우 150만미를 방류했으며 앞으로도 내·해수면에 고부가가치 어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생산력 증대에 앞장 설 계획이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도초면 우이도 예리마을 담장.

신안군, 담장 보존 3개 마을 등록문화재 추진

신안군이 전통 담장 원형이 잘 남아있는 흑산면 가거도 대리마을과 도초면 고란마을, 도초면 우이도 예리마을 등 3개소를 등록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이다.

가거도는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태고의 순수가 잘 보존된 곳이다. 대부분의 담장은 마을 안길에 있으며, 마을의 변천사와 섬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도초면 우이도리는 조선시대 선장이 남아있는 정도로 섬 문화원형의 보고로 손꼽히는 곳이다. 특히 예리는 한동안 공동화된 마을로 섬마을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도초면 고란마을 담장은 축간채와 연

결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뛰어난 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문화재이다.

신안군은 지난 2015년부터 집중적으로 섬 마을 원형이 잘 보존된 마을, 민가, 담장 등을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조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신안군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자료수집, 보존·복원 사업, 섬 문화자원 접근성 확보 및 홍보 등 섬 가치 공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읍 5일시장 주차타워 공사 본격 추진

해남 5일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타워가 세워질 전망이다.

해남군은 해남읍 5일시장 주차타워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이에따라 12일부터 남동교 앞 1주차장의 진입로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군은 5일시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2층 3단, 연면적 2,831㎡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고 있다.

주차타워는 총 72면의 주차면을 갖추게 돼 5일시장 인근 기존 주차면에 더해 21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사에 따라 12일부터 남동교 앞 출입구가 폐쇄됐고, 남부순환로 출입구에서만 진출입이 가능하다.

공사기간은 4개월 예정으로, 이 기간동안 시장을 찾는 고객들은 2주차장과 성민교회 앞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일요일을 제외하면 성민교회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고질적인 시장 주차난을 해소해 해남읍 5일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이달말까지 주민세 납부 홍보

진도군이 주민세를 부과하고 8월말까지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진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분 1만원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주민세 사업소본은 기본세액과 사업장 면적에 따른 세액으로 구성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군은 사업소본의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 최소화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 8월초에 해당 사업자에게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주민세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되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강화 등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형영 기자 hypark@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8월호

2022년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정원에서 힐링하다

- 나의 정원이 모두의 정원으로
- "그 섬에 특별한 정원이 있다"
- 전남 민간정원 1호 '힐링파크 쑥섬쑥섬'
- 전라남도 정원 문화와 산업 가교단

영도 오디세이
美路 味路

초록 물결 일렁이는 보성
녹차수도로 여름 여행

- 득량역 '추억의 거리'와 강골마을
- 율포 솔밭해수욕장/제암산 자연휴양림 / 대한다원 녹차밭
- 백록다원 '보성녹차' / 상선농원 딸기 브랜드 '그로우글로우'
- 북방관광시설 카페 '북재'

연중 기획·광주 한 바퀴
GWANGJU TOUR

#8월 광주여행
#동명동 일대 풀리 #광주읍성과 풀리 #충장로 풀리
#뚝뚝의 공간 속 풀리

에앙 초대석
제주에 정착, 창작의 밭 일구는 시인 문태준
"문장을 얻는다는 것은 새 마음을 얻는다는 뜻"

여름기획
음악, 문학, 미술의 아름다운 바다
'예술여행' 원한다면 통영으로 떠나요

- 기획-유렵은 지금 미술축제 중
- 장현우 관장의 유럽 미술 빅이벤트 관람기
- 예술 축제의 도시들에게 배운다

황영성 화백의 아메리카 그림 여행①
오래된 화첩에서 매력적 미국 풍경이 살아난다

절의·학문 드높은 하시 김인후 배향장성 필암서원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
뒤든 느린 미술평론가 유준상 점심 요리 저녁 때야 완성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
영화 '브릿지 존스의 일기'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